친환경 건축법규 발행

ASTM, 친환경 건축 표준 수립

확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건축 분야에서도 진환경 건축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고 있다. 이어 마리 얼마전 ASTA 국제표준을 다룬 교체 천원경 건축범규가 발간됐다. (편집지)

축분야 46개의 ASTM 국제표준을 다룬 국제 친환성 건축법규(IgCC: International Green Construction Code)가 발간됐다.

이 법규는 상업용 전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의 개· 보수를 나루고 있다. IgCC가 발간됨에 따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축'이라는 비전 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일자리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STM International은 미국건축가함회(AIA), 미국공조명동공하회(ASHRAE), 미국천환경건축혐의회(USG3C), 미국조명기술자함회(IES)와 함께 친환경 건축에 관련하고 있는 5개 단체 중 하나이다. 세로운 친환경 법규는 범규 및 건설업계 전문가, 환경 단체, 정책임안자와 대중의의선을 수렴하는 공성화를 가지 3년이 끝에 개발됐다.

ASTM E2399(옥상 녹화), ASTM C1549(일사 반사용), ASTM E2635(건물 내 수질관리)와 같은 ASTM 천환경 건축 표준은 2012년 천환경 건축법규의 일환이다. ASTM의 13개 기술위원회는 청정도에서부터 열 선열까지 친환경 건축



▲ 전환경 건축법국는 상업용 건물뿐은 이나리 주가용 건축물의 개· 보수를 다루고 있다.

규정에 관한 표준을 IgCC에 수록했다. ASTM E06(건축물 성능평가)과 E60 (지속가능성)은 새로운 친환경 규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IgCC는 모든 건축사업 분야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포함시킨 최초의 규정이다.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모두 에너지 모존, 수자원의 효율성 제고, 건설부지에 미치는 영향, 건축례기물, 자재 효율성 및 기타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규정된 언어를 제공한다. IgCC의 초기 버전은 이미 이리 국기와 관한구역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100년 전 ASTM의 최초 표준 활동은 건축 분야였다. 오늘날 1,300개 이상의 ASTM 설명서와 시험방법은 건축문의 설계, 건축, 유지보수에 활용되고 있다. 건축과 관련된 ASTM 표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www.astm.org/DEMO/buildingcodessubscriptions.htm에서 찾아볼 수 있다.